

“주말 불심을 잡아라!”

주5일제 겨냥 진각·총지종 연구위 구성

진각종 지방교구청 강화...산내연수원 개방

총지종 괴산수련원 활용 주말가족법회 검토

‘우리도 주말 가족수련회를 열어 볼까?’
 도심에 있는 사찰(심인당)들이 대부분인 진각종과 총지종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주5일제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주5일 근무제가 불교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들 종단은 자성일(자기의 성품을 닦아 밝히는 날)이라는 뜻으로 한 주의 첫 날인 일요일을 지칭한다. 법회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고민도 그만큼 심각하다. 이에 따라 진각종과 총지종은 주5일 근무제가 가져올 생활패턴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회방안 연구에 고심하고 있는 것.
 진각종의 경우 기존의 자성일 법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요일 법회와 토요일 오후법회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대해 검토를 거친 바 있다. 그러나 실효성 면에서 떨어질 것

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진각종은 통일원 포교부와 비로자나청소년연합회, 전국청년회 등 포교 관련 책임자와 실무자들로 연구위원회를 최근 구성했다.
 연구위는 내부적으로 포교시스템을 새롭게 갖추기 위한 연구는 물론, 교회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계층별 산하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등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포교프로그램 연구활동을 펼친다. 지방교구청·심인당 활동 강화, 주말프로그램 운용, 산내연수원 시설 개방 등 실현가능성이 있는 모든 방안을 놓고 연구와 검토작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총지종은 기존의 교회발전연구위원회에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포교정책 개발 업무를 위임하고 법장원과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도록 했다. 스승 10명과 종무원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교회발전연구

위는 10월 22-24일 추기강공 기간 중 첫 모임을 열고 향후 활동과 포교방안을 논의한 결과, 자성일 외에 평일에 법회를 한번더 여는 방안과 괴산수련원을 활용한 주말 가족법회 개최 등의 일부 의견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종단내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진각종과 총지종의 이같은 움직임에는 토-일요일 연휴를 즐기려는 문화가 보편화될 경우 종교생활이 등한시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또한 새로운 포교정책과 방안이 일선의 심인당이나 사원까지 적용되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인식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진각종 포교부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종교생활의 패턴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단 차원에서 확실하게 대비함으로써 전회위부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포교프로그램 연구와 정책 개발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태고 비구니회 임시총회

12월3일 회장단 선출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 봉원사에서 차기 회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총회는 회장 윤정스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비구니회 활성화 방안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윤정스님은 “현재 종단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조조작으로서의 산하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개혁불사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비구니회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

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이번 총회는 비구니회를 이끌어갈 회장단을 선출하는 자리가 될 뿐 아니라 비구니회의 활성화 방안과 향후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회의인 만큼 더없이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회중, 19일 중앙총회
 총회중 중앙총회(의장 회담)는 11월 19일 오전 11시 남양주 수진사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53차 정기중앙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2003년 사업 및 결산 보고, 200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종단 의식발전 보급의 건, 종단발전을 위한 정책 선정 등의 안건이 다뤄진다. (031)592-8891~2



진각종 보살심선계 수계관정

진각종은 11월 10일과 11일 서울 탑주심인당과 대구 회락심인당에서 삼매야계단 보살심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했다. 입문한 지 1년이 경과된 진인행자(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불사는 지광 대종사를 전제(아사리)로, 일정 대종사를 갈마(아사리)로, 성초 종사를 교수(아사리)로 진행했다. 이날 불사에 참가한 진인행자들은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라” 등 10가지 계를 받았다.

천태종 대북사업 협력자로

통일부 승인, 사회문화분야 교류 쉬워져

천태종이 통일부로부터 개정 영통사 복원 불사 및 관련 부대 행사를 위한 대북교류 협력사업자로 승인 받았다. 통일부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천태종을 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로 동시에 승인, 11월 4일 증(승인)번호 2003-14호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천태종은 북한과 영통사 복원은 물론 관련 부대행사에 관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향후

영통사 인근지역의 불교유적 발굴과 문화재 복원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가 용이해졌다.
 천태종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과의 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46만명에 달하는 영통사 복원을 위한 ‘통일기’와 ‘성공적으로 전담하는 것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향후 추가적인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영 기자



前 관음종 종정 혜응스님 3주기 추모

관음종 제5세 종정 혜응스님의 열반 3주기 추모대제가 11월 7일 주석처였던 천안 보열사에서 열렸다. 추모대제는 종정 즉신스님의 법어, 총무원장 홍파스님의 추모사, 천안사암연합회 회장 대원스님의 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혜응스님의 유업을 받들어 후학들은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원력을 모아 나가자”고 추모했다.

감동의 신행체험수기 공모

- 주제: 일상속의 신행체험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인판(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4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 접수 마감: 12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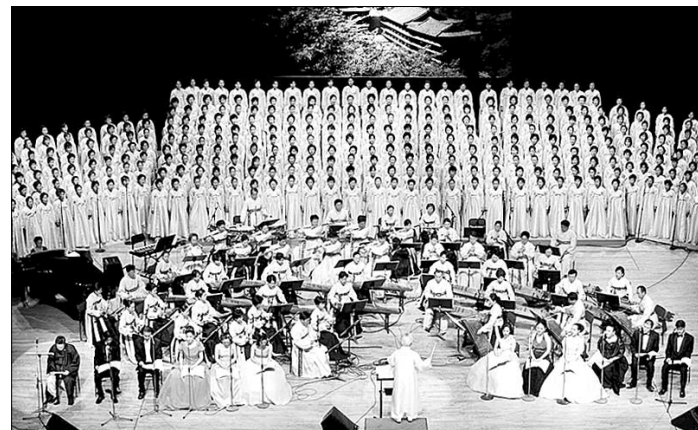
200자 원고지 30매... 12월 13일 마감

● 시상내역

- 대상(유망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 △ 중단협의회회장상 △ 천태종 총무원장상
-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 신수회장상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



◇11월9일 열린 창작성곡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 공연모습.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의 생애와 사상, 업적을 조명하는 제8회 천태예술제 11월 8일 KBS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은 천태종 전통법배보존연구회의 불교의식을 시작으로 제1장 '천태종의 창건과 유래', 제2장 상월원각대조사의 신이한 탄생 등 15장으로 진행됐다. 430여명의 천태종 연합창단과 중창단 엘엘비어스(L.M.B.Singers)의 웅장하고 화려한 화음과 KBS 국악관현악단의 반주는 1700여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교성곡 '상월원각대조사'는 한양대 이상규 국악과 교수가 작곡한 곡으로 이날 처음으로 선보였다. 관련 기사 4면

▲농인종합사회복지관

행사 관은 11월 17-12월 22일 매주 월요일 오전 10-오후 2시 복지관에서 간병책임자 역할 습득을 위한 간병교육을 실시한다. 간병인의 특성 이해, 의사소통기술, 간병기술, 간병자의 심층수련 등 교육. 선착순 30명 마감. 수강료 3만 원. (02)571-2988

▲진각복지재단은 11월 22-23일 강원도 횡성 현대 성우 유소스텔에서 2003 진각복지재단 산하 시설 직원 연수를 실시한다. (02)942-0144

▲금릉노인종합복지관은 11월 28일 오후 1-3시 복지관에서 무료 청력검사 및 보청기 수리를 실시한다. (02)804-4068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11월 28일 오전 10-11시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실버정수기공 기체조 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기경력연 구소 김경수 소장의 강의로 진행된다. (02)385-1351

게시판

모집

▲연꽃마을 마포제가노인복지센터는 경로식당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활동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1-오후 1시30분 주1회 택일이 가능하다. 봉사영역은 배식보조 및 설거지, 청소, 신청방법은 전화 또는 내방상담. (02)365-3677

▲부산 문은대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정보화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업일시는 매주 월-금요일 오전 12-오후 6시. 준비서류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수첩이며 장애인 가족은 주민등록등본, 수업료 무료. (051)264-9033

구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직장체험연수생을 채용한다. 연수생은 교육복지, 지역복지, 주간보호, 단기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모집인원은 5명. 지원자격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이다. 마감은 총원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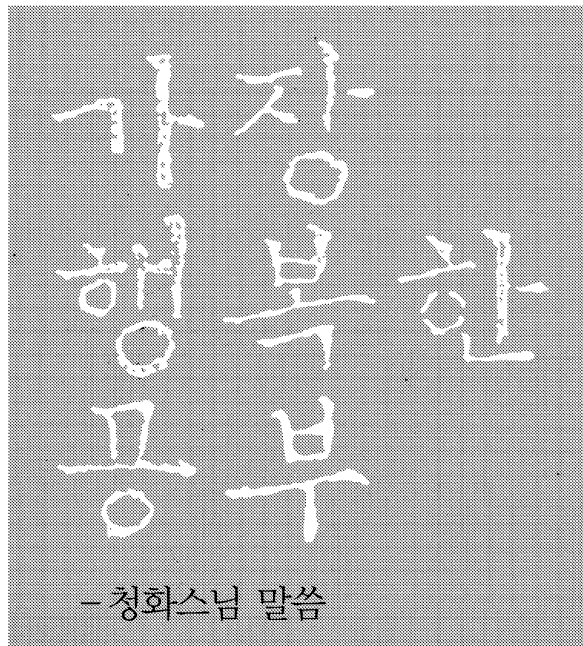
(02)466-6242

▲인천 영산정사는 피아노 교사를 채용한다. 피아노 연주와 합창단 지휘 능력이 있을 것을 요하며 모집인원은 1명. 마감은 채용시까지. (032)873-1059

▲부산 율호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와 회계담당직원을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관 경력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이며 회계직원은 경력자. 준비서류는 입사지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졸업(예정)증명서, 자격증 사본,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경력 증명서 각1부. 마감 11월 22일. (051)628-6737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지우기에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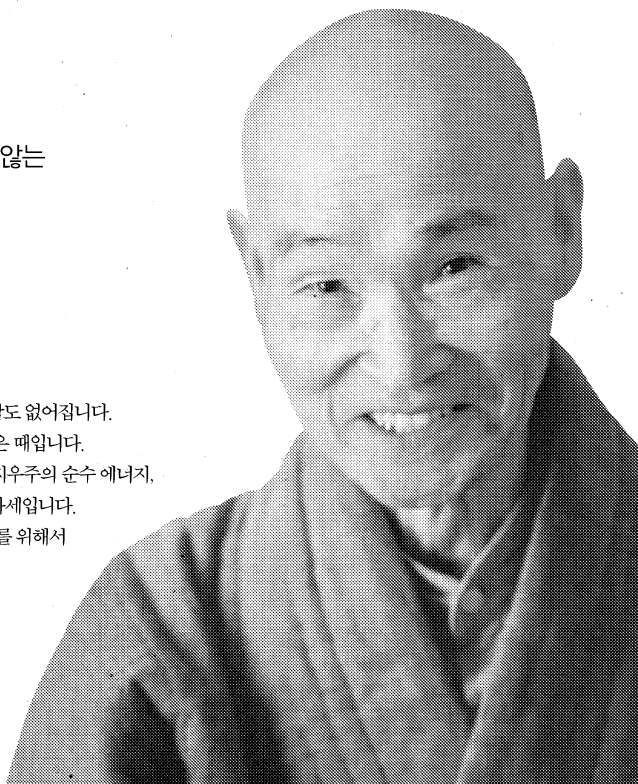
우리 시대 큰스님, 청화스님의 맑고 깨끗한 법문



40년간 하루도 바닥에 등을 대고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수행,
 하루 한 끼만의 식사,
 그리고 철저한 계행(戒行)의 삶.....
 불교계의 큰어른 청화 스님이 전하는
 행복한 마음 공부

참선을 할려면 내가 없고 내가 없고 미운 사람, 좋은 사람도 없애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만이 좋은 날이고 때때로 좋은 때입니다.
 우리 마음은 나다, 너다, 좋다, 싫다를 다 떠나서 천지우주의 순수 에너지,
 순수 정기인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이 참선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것이고, 열불도 그 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날 모두 좋은 사람” 중에서(40쪽)

● 청화스님 말씀 | 신국판 | 269쪽(컬러 화보 포함) | 값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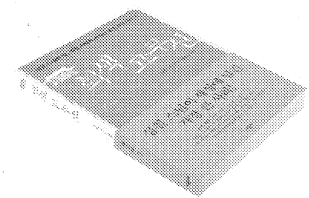


전화 588-0833 팩스 588-0835 www.sigongsa.com **시공사**

청담스님의 딸, 성철스님의 제자인 묘엄스님 이야기

회색 교무신

낡은 걸망 하나, 기워 입은 옷 한 벌,
 그리고 고무신 한 켤레가 가진 것의 전부였던 시절.
 묘엄스님이 추억하는 이야기 속에는
 맑은 가난을 즐기던 청빈한 수행자들의 삶이 가득합니다.



● 묘엄스님 구술, 윤창광 엮음 | 신국판 | 356쪽 | 값 9,000원